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가이드북

7TH
ANYANG
PUBLIC ART
PROJECT
GUIDEBOOK

두 번째 삶: 서식지 *Second Life: Habitat*

팅통창

Tingtong CHANG (1982~)

*협력 아티스트: 청시엔유
*Collaborating Artist: Hsien Yu CH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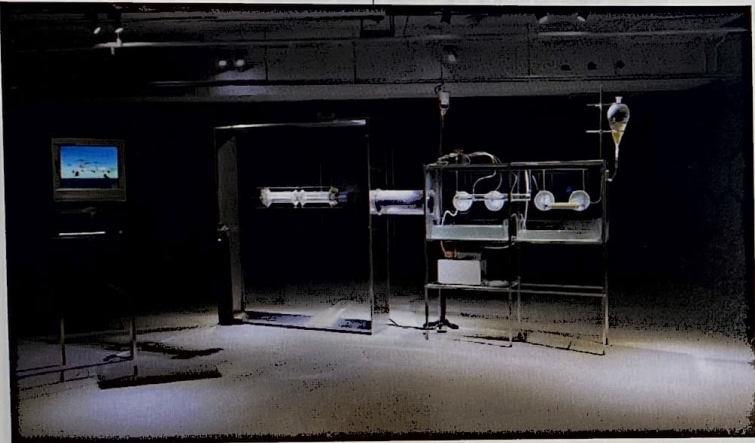
대만
Taiwan

대만 타이베이 출생
현, 대만 타이베이,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거주 및 활동
Born in Taipei, Taiwan
Lives in and Works in Taipei, Taiwan and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풍자적인 시선으로 소비주의의 사회적 혹은 생태적 쟁점을 탐구하는
팅통창의 <두 번째 삶: 서식지>는 생명체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여하는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그 범위에 대해 논하며 가상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에 대해 관람객의 재고를 촉구한다. 작품의 아크릴 박스 내 모기는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를 거친다. 이후 죽은 모기는 게임의 아바타로
변환되며, 관람객에 의해 먹고, 마시고, 자며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현실 그리고 가상의 삶, 기술의 완전한 사이클을 이루는
작업을 통해 게임을 유희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는지 디지털 시대의
삶의 실재성에 대해 반문한다.

Exploring the social and ecological issues around consumerism
through a satirical lens, Tingtong CHANG's *Second Life: Habitat*
discusses the role and scope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cycle of organisms, urging the viewer to reconsider the dilemma
between virtuality and reality. The mosquitos in the acrylic box of
the work go through all stages of their life cycle. After death, the
mosquitoes are transformed into avatars in a game, which can be
given food and water, put to sleep, and even killed by the viewer.
Through the work of completing a cycle of real and virtual life
and technology, the artist asks the viewer whether a game can

be considered a form of
entertainment, raising
questions about the reality
of life in the digital age.



<두 번째 삶: 서식지>, 2023, 금속, 아크릴, 전자 장치, 모니터, 유리, 300 × 300 × 200cm
Second Life: Habitat, 2023, Metal, acrylic, electronic equipment, monitor, glass, 300 × 300 × 200cm

마지막 생존자 *The Last One*

루카스 비즈너, 에스터 비즈너,
미리암 풀메코바

Lukas VIZNER (1998~), Ester VIZNER (1996~),
Miriam FULMEKOVA (1994~)

슬로바키아
Slovakia

슬로바키아 포프라트 출생 /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출생
/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출생
현,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거주 및 활동 / 현, 슬로바키아
현, 체코 프라하 거주 및 활동 / 현,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거주 및 활동
Born in Poprad, Slovakia / Born in Bratislava, Slovakia /
Born in Bratislava, Slovakia / Lives
and works in Bratislava, Slovakia / Lives
and works in Prague, Czech Republic / Lives and
works in Bratislava, Slovakia

<마지막 생존자>는 인류가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미래에
지구에 남아있는 도시의 마지막 주민인 한 여인과 한 방문객의 만남을
보여준다. 버려진 도시 속 두 사람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이 영화는
단순히 픽션으로 여겨지지 않고, 지금도 문제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사회 문제들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마지막 생존자>, 2021, 영화, 23분 30초
The Last One, 2021, Film, 23 min 30 sec

The Last One depicts an encounter
between a woman, who is the last
inhabitant of the only city left on Earth in
a future where humanity has migrated to
a new planet, and an unexpected visitor.
The film, which depicts the journey of the
two throughout an abandoned city, is not
merely just a fictional story but serves as
a medium that allows audiences to think
about social issues that currently concern
us and that will be further challenged in
the future.

테오 *Theo*

에두아르도 분스터,
벨렌 아바르자

Eduardo BUNSTER (1980~),
Belen ABARZA (1986~)

칠레
Chile

칠레 산티아고 출생
현, 스페인 마드리드 거주 및 활동
Born in Santiago, Chile
Lives and works in Madrid, Spain

<테오>는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생명체도 디자인할 수 있는
미래에 자신들의 아이를 디자인하려는 부부가 겪는 일들을 보여준다.
생명공학과 AI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세계 속에서 제안되는 다양한
선택지들과 이에 대한 부부의 반응은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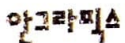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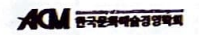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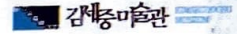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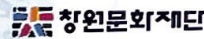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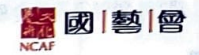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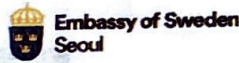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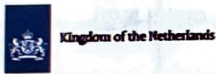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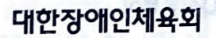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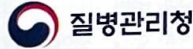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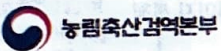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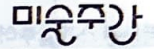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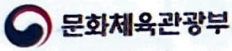
Theo features a couple trying to design their
own child in a future where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ows humans to
even design other living beings. A wide range
of choices proposed to the couple in this world
with extremely advanced biotechnology and
AI and their reactions to these options provoke
imaginings and inspire reflections on the
society of the future.

<테오>, 2021, 영화, 18분
Theo, 2021, Film, 18 min

주최 / 주관



후원 / 협찬 / 협력



미디어 후원





2023. 8. 25. ~ 11. 2.

7구역 - 당신의 상상공간

ZONE 7 - YOUR IMAGINARY SPACE